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11. 5.(목) 14:17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허원제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17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55차, 제57차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51차, 제52차, 제53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2015-58-25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201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2016년도 공익채널 선정,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대상과 선정 또는 인정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도 공익채널은 공익성 방송분야별로 3개 채널, 총 9개 채널을 아래의 <표>와 같이 선정한다. 사회 복지분야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방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국직업방송, (주)유로티브이의 육아방송이 선정되었습니다. 과학·문화 진흥분야에서는 (주)아르페의 예술TV Arte, (재)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TV, (주)와이티엔의 사이언스TV가 선정되었습니다. 교육 지원분야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플러스1 수능전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EBS 플러스2 중학/직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EBS English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등을 감안하여 육아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정조건을 부과한다. 선정 조건으로 육아방송 법인명 (주)유로티브이는 '16년도 공익채널 신청서상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15년 11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2016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조건을 부과한다. 복지TV는 '16년도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계획을 '15년도 상반기 실적 16.5%보다 상향 조정하고, 자막방송, 수화방송 및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한 품질제고 계획을 '15년 11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에 따라 201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대상과 선정 또는 인정 조건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채널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총점의 65%인 650점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공익성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대상 채널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 선정사업자의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 편성비율' 및 '본방 편성비율' 등 계획 관련 배점을 축소하고 '과거 채널 운영실적' 관련 배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청채널과 관련 없는 채널운영 법인의 사업내역 등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정된 채널은 시청자 의견이 신속하게 처리·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 운영 횟수를 늘리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육아방송의 경우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므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차기 심사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채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의 70%인 700점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주)희망복지방송의 복지TV가 인정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HD방송 장비구축, 본방·자체·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외국어 프로그램의 한국어 더빙 관련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둘째, '16년도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계획을 '15년도 상반기 실적 16.5%보다 상향조정하고 자막방송, 수화방송 및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한 품질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익채널 선정서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서 교부를 11월 중에 하고, 분기별 운영실적 점검은 '16년도 매분기 이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방송사들이 신청을 한 상당히 복잡한 업무였을 텐데, 고삼석 상임위원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박 3일 동안 합숙하면서 심사에 전념해 주신 방송지원정책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심사를 잘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비해 응모한 채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 자체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두 번째에 보시면 '신청채널과 관련이 없는 채널운영 법인의 사업내역 등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 필요'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공익채널 가운데 기존 사업자에게 위탁해서 운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실적,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도 있지만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자의 재정 상황들이 심사하는데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점과 연관해서 보면 채널의 운영 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사업자와 위탁해서 공익채널을 운용하는 운영사업자와 그 채널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심사에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채널 인정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이것이 어찌 보면 심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단독으로 신청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신청 계획서상에 냈던 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마땅치 않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출한 계획서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의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공익채널의 경우에 위탁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법인명으로 나와 있는 곳에서 직접 해당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데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한국직업방송 워크TV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TV에 위탁을 해서 제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방송에 대한 업무는 하지 않고 전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은 한국경제TV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한국경제TV의 사업 내용이나 능력은 심사에 크게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일단 그 부분이 공적인 활동 부분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활동 부분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대외적인 활동, 공익적 활동했던 부분들이 기술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한국경제TV에서 했던 부분이 섞여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주어야 정확히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반영은 모두 하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개별로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은 지금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사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심사하시면서 느끼시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심사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공익채널 선정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방송사업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 선정 내지 인정이 되어도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애써서 심사는 하지만 선정 내지 인정되는 방송사업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이번에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능력에 대한 배점을 높였습니다. 작년에도 사회 복지 분야에 8개가 신청을 했는데 보통 다 재정적인 능력에서 과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공익채널로 선정이 되면 의무편성이 되기 때문에 개별PP 입장에서는 혜택이 상당히 큰 측면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교육지원 분야에 EBS 플러스1·2, English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EBS의 이 3개 채널이 선정 안 된 적이 있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없었습니다.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 그 두가지 측면이 다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문화 진흥 분야도 그렇고, 사회 복지 분야도 그렇고 이런 방송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선정, 인정되어도 또 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다른 새로운 우수한 사업자들을 발굴하는 측면에서 보면 운영상 뭔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향후 계획 중에 분기별 운영실적 점검은 왜 하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이 공익채널에 대해 예산 사업으로 분기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니터링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나온 부분을 보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평가보고서를 또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다음에 심사할 때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그 사업자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이 되겠네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만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선정사업자가 그다음 해에 신청을 해야지 들어올 수 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육아방송처럼 사업계획서 내라고 하고 그것대로 성실히 이행하라는 조건은 왜 부과하는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전년도보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서 계속 이 조건이 붙었는데 작년도도 이 부분이 붙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운영실적 점검은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다음 해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사에 반영한다면 육아방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성실히 이행하라고 하고, 어느 경우는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듀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운영실적 점검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고, 육아방송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이번에 선정하면서도 보니까 작년도에 평가한 실적 자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으로 붙여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익년도에 심사를 할 때 그 전년도 실적을 반영한다, 그 취지에서 보면 모든 인정 내지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고 그것대로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를 일괄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운영실적을 점검해서 그것을 익년도에 피드백시키든지 일원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다른 사업자들은 이행실적이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소상공인방송이나 직업방송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개선된 점이 많았고, 육아방송의 경우에는 계속 이행실적 부분들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런 조건을 붙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올해 선정할 때의 점수 폭이 많이 낮아졌고 육아방송의 경우에는 약간 높은 상태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심사위원장님이신 고삼석 상임위원님께서 2박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2박 3일 동안 심사하셨다고 해서….

○ 고삼석 상임위원

- 3일 내내 다녔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와 너무 차별화되는 것 같아서, 저는 하루 종일 압축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였는데 어느 위원님은 2박 3일 동안이어서 제가 혹시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맡게 되면 같이 1박 2일이든 2박 3일로 하지, 왜 하루 만에 끝내는지….

○ 최성준 위원장

- 내년에는 이기주 위원님께서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방송의 경우에는 일종의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내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잘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조건을 붙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교육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EBS2를 시험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내년에 EBS2가 법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허가를 얻고, 또 의무 재전송에 포함이 되어서 가면 EBS 플러스1·2, EBS English 중 한두 개가 제외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PP로서 별도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 일부를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당장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공익채널을 선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 재전송이 되도록 해서 이런 교육 내용을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데, EBS2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EBS에 대한 공익채널 선정을 최소한 하나라도 정리하고 다른 교육채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교육채널이 우리가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어느 정도 수준에는 당연히 올라와야겠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육 지원 부분은 완전히 EBS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혀 들어갈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 변화를 내년에는 진행되는 것에 따라 알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허원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상임위원

- 9개 공익채널 중에 지금 현재 시청가구 숫자가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송출되는 플랫폼 숫자들, 시청률 등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비슷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과학·문화 진흥 분야의 아리랑TV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가정에서는 아리랑TV를 다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91개 플랫폼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그래서 아리랑TV라든지 거의 의무 재전송 채널 비슷하게 각 플랫폼사들이 다 캐리(carry)해주는 것은 굳이 여기에 우리가 선정해 주지 않아도 이미 그만큼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는

차원이라고 보면 아리랑TV는 아예 선정대상에서 졸업시키고 새로 신규로 키워 주어야 할 채널들을 선정해 주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강자들은 졸업시킬 때는 졸업을 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선정하는 것이 어떠한 생각이 듭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허원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허원제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가 방송·통신 분야의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역할을 이런 제도를 통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일상화된 그런 방송사업자를 계속..., 아까 제가 EBS를 예로 들었지만 EBS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해당 SO가 오히려 이것을 안 보내면 시청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사업자들을 매년 계속 선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원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내년에 검토해 봅시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고려하겠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리랑TV 부분과 EBS 플러스1 수능전문 분야들은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SO에서도 필수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의견들, 또 아까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40분 폐회 】